



북한방송 주요논조

2013.3.25(월)
통 일 부
[정 세 분 석 국]

● 대남동향

- 北 「조평통」 대변인 담화(3.24), 남한의 '유엔 인권이사회의 對北 인권 결의 채택 적극참여' 現 정부와 “새누리당을 벌초 해버릴 것” 위협(3.24, 중통·중방)
 - ‘정권이 바뀐 후에도 反北 인권모략소동이 더욱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주목하면서 높은 적개심을 가지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의지를 가다듬고 있음.’
- 北 「조평통」 서기국 보도 제1025호(3.24), ‘국정원’의 지난 해 大選 당시 ‘정치개입행위’ 등 인용 주장하며 ‘파쑈독재통치 총본산, 反北모략 대결 본거지’라고 비난 및 ‘해체투쟁’ 선동(3.24, 중통·중방)
-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對北 발언(3.20, 北 지속적 위협강화로 위기감고조 등)을 ‘北에 도발자 감투를 씌우고 대결소동 강화를 위한 궤변’으로 비난과 ‘핵억제력 영구화’ 강조(3.24, 중통·노동신문·평방/현실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악담)
- 우리 정부의 ‘UN 對北 추가제재 동참과 韓美 합동군사훈련’을 “체제 통일 망상실현 흉계”로 ‘남북間 긴장격화, 한반도의 핵전쟁위기 고조 원인’이라고 왜곡 전가 및 위협(3.24, 중통·노동신문/긴장격화와 전쟁의 근원)
- 우리 해군의 ‘北 천안함 폭침(3.26)’ 3주기 관련 ‘응징의 날’ 지정 및 ‘해양수호결의대회’ 등 추모행사 계획에 대해 ‘그 책임을 北에 떠넘기려는 교활한 술책의 산물’이라고 책임 회피(3.24, 중통·민주조선)
- 南 군부의 백령도에 군용비행장 건설 계획, 연합뉴스 인용 비난 (3.24, 중통)

● 대내동향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3.24 인민군대 여러 부문사업 지도(3.25, 중통·중방·평방)
 - 최룡해, 현영철, 김격식, 김경옥, 럽철성 등 동행
- * 김정은, 3.24 조선인민군 제1501군부대와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조하고 있는 식당배 ‘대동강’호도 시찰(3.25, 중통·중방·평방) ※ 수행 간부 未언급
- 김정은 黨 제1비서, 리성애(인민보안부 산하단위 부원) 등 ‘좋은 일을 한’ 근로자-노동자들에게 ‘감사’ 전달(3.25, 중방)
- 각계층 근로자 - 일꾼들의 ‘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(3대혁명전시관)’ 참관 선전(3.24, 중통)

● 대외동향

- 【조선중앙통신사 보도】 ‘정전협정 백지화’는 “조선반도의 전쟁상태를 끝장내기 위한 정의의 대결단”이라고 미국 책임 강변 및 “반미대결전” 호언(3.24, 중통·중방)
 - ‘△유명무실해진 현실로부터 취한 자위적 대응조치, △미국의 反北정책을 끝장내기 위한 정의의 선택, △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’
- 최근 미국의 한반도에서 ‘키 리졸브·독수리 합동군사연습 실시’ 등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“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도발자, 평화의 파괴자”라고 비난(3.24, 중통·노동신문/반공화국 핵전쟁연습의 도발적 성격과 위험성)

//끝//